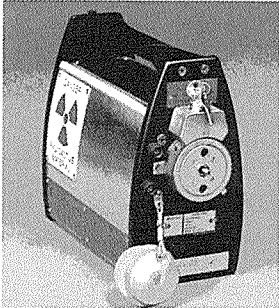


## 분실된 비파괴검사용 방사선조사기 안전사고 없이 회수

9월 29일 오후 2시쯤 분실된 비파괴검사용 방사선조사기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회수됐다. 과학기술부는 경남 김해시 진래면에 거주하는 한 지역주민이 이날 밤 10시30분께 이 일대 도로변에 떨어져 있는 방사선조사기를 발견, 진래파출소에 신고해 오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을 현장에 파견,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수한 방사선조사기는 분해되거나 파손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 우려는 전혀 없다고 과기부는 말했다. 이 방사선조사기는 나진검사기술(주) 창원현장 직원이 경남 김해시 진래면 소재 대흥기공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수로용 파이프 방사선투과 검사를 마친 뒤 창원시 도계동 사무실로 이동중 분실한 것이다. <중앙일보: 98/09/30 >



## ‘망막모세포종’ 치료 연구결과 발표.

눈에 생기는 癌 가운데 가장 흔한 ‘망막모세포종’을 안구를 빼내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원자력병원 안과 李泰遠박사팀은 최근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안과학회 심포지엄에 참석, “방사선치료를 비롯해 약물치료, 냉동치료, 레이저치료 등을 통해 안구를 제거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모두 1백1명의 망막모세포종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했다”고 보고했다. 망막모세포종은 악성 안구종양으로, 암종양을 없애기 위해 안구를 함께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왔다. <강원일보: 98/10/13 >

## 자궁근종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한다.

흔한 자궁종양인 자궁근종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문의대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이위헌교수와 방사선과 안창수교수팀은 자궁혈관을 막아주는 「색전술(塞栓術)」을 이용, 자궁근종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고 최근 밝혔다.

색전술이란 가는 관을 대퇴동맥을 통해 자궁동맥의 말초부위인 자궁 및 자궁근종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한 후 혈관을 막히게 하는 물질을 보내 종양부위 내에 혈액공급을 막아 주는 시술법이다.

근종의 영양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종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실제로 치료팀은 이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자궁근종 환자를 치료했다. 치료 후 1주일 이내에 50% 이상이 종양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환자들도 종양이 작아지는 등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환자의 주요 증상인 하복부 통증과 질출혈 등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도 2~3일로 짧아졌다. 이위헌교수는 『이 치료법은 자궁이 보존돼 치료 후에도 임신이 가능한 물론 수술이나 마취로 인한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98/10/12 >

## 「의료분야에서 2000년 해결을 위한 제1차 세미나」

의료장비와 이를 운영하는 전산장비를 그대로 놔둔 채 사용할 경우 오는 2000년을 전후로 해 디지털 방사선장비의 가동중단, 혈중 약물농도 측정기의 동작불능, 초음파 영상진단기 분만 예정일 계산기능 오류, 심전도계 기록·프린트 기능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보일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열린 「의료분야에서 2000년 해결을 위한 제1차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박광석 교수는 「의료기기 2000년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달 중순부터 문제 발생이 가능한 총 5백개 전자의료기기 품목에 대해 파악한 결과 이처럼 2000년 문제가 의료업계의 심각한 현실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9월 29일 기준으로 총 5백개의 의료기기를 점검한 결과 제조회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된 기기는 폐기능검사기 등 전체의 10%에 불과한 16개 품목, 52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인피메드사의 디지털 방사선장비는 연도입력을 「00」으로 하면 가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보여 운영프로그램을 다시 입력해야 했으며, 애보트사의 혈중 약물농도 측정기와 MLA사의 자동응고분석기는 연도 입력을 「00」으로 하면 「Invalid Date」라는 사인을 출력해 동작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ATL사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2대와 알로카사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3대는 2000년이 되면 분만 예정일이 계산되지 않았으며 GE사의 CT는 연도표시가 「\*\*」으로 나타났고 마케트사의 심전도 리코더 10대도 연도기록 입출력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아직 조사하지 못한 의료기기 중 상당수도 각종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의료기기에 대한 2000년 문제 발생 가능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효율성을 고려해 수술관련기기·중환자실용기기·응급실용기기 등에 문제 해결 우선순위를 두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의료기기에 대한 2000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예정이다. < 전자신문: 98/10/14 >

## 대한방사선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관련 전시회를 개최

대한방사선의학회(회장 진수일)는 15~17일까지 서울 잠실롯데월드호텔에서 추계 학술대회 및 관련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메디슨·삼성GE의료기기·지멘스·필립스 등 방사선기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시회가 함께 열려 첨단 방사선 장비들을 선보인다. < 전자신문: 98/10/16 >